

# 01

## 디지털 성폭력 피해현장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김영미 법률사무소 세원 변호사

### 인지

“미나(가명)야~ 내가 우연히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몇 번을 돌려봤는데도 너랑 너무 닮아서... 혹시나 하고...”

미나씨는 대학 졸업 후 몇 해 동안 연락이 뜸했던 대학 동기의 전화를 받고 처음으로 동영상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미나씨도 설마 자신은 아닐 거라고, 미나씨와 닮은 여성일 거라고 애써 부인했지만, 또 다른 지인으로부터 걸려온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고서야 그 동영상을 확인해 보았다.

미나씨에게 전화했던 두 명의 지인이 말했던 동영상이 올라왔던 사이트는 달랐지만, 동영상 파일의 제목은 같았다.

“cc커플\_쓰스녀\_신음소리주겨ㅎ(가제목)”

### 사건의 발생경위

미나씨는 대학 졸업 후에 어느 기업에 취직하였고, 그곳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남자친구를 만났다. 남자친구는 미나씨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보자고 요구하였고, 미나씨는 처음에는 거절하였지만 남자친구의 계속되는 요구와 약간의 호기심이 합해져서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었다. 그 후부터는 나체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 각자의 휴대폰으로 각자가 촬영자가 되어 서로를 찍어주었다. 그리고 서로 공유하며 좋았던 시간을 회상하며 즐거웠다. 그렇게 약 2년간 사귀었고, 미나씨는 남자친구와 성격차이로 헤어졌다. 미나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주고받은 선물,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을 모두 폐기하였다. 미나씨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남자친구도 미나씨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남자친구는 미나씨와 헤어진 후에도 미나씨를 잊지 못해 미나씨에게 다시 만날 것을 제안했으나, 미나씨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다. 남자친구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미나씨가 야속하고, 화가 나서 평소 즐겨 찾는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에 미나씨의 얼굴이 드러난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남자친구는 곧 후회하고 동영상을 올린 지 채 30분이 지나기 전에 동영상을 그 사이트에서 삭제하였다. 그러나, 이미 그 동영상은 100명 이상이 다운로드 받아간 후였다. 그리고 그 100명 중 10% 정도의 사람은 다른 수 개의 사이트에 그 동영상을 다시 업로드하였고, 그렇게 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불과 며칠 사이에 수만 명이 되었던 것이다.

미나씨의 사례만이 아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갔던 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일어나보니 어느 모텔 방 안에 옷이 벗겨진 채 홀로 누워있었다. 함께 갔던 친구는 갑자기 사라진 친구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위치추적을 통해 피해자가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었다. 피해자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매일 인터넷 음란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며 혹시나 피해자의 영상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그리고 며칠 후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동영상이 업로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행히 CCTV 등을 통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고 유포한 범인을 잡을 수 있었지만, 이미 유포된 동영상은 건잡을 수 없이 확산된 후였다.

##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

과거에는 언론인 등 특정인이 신문과 TV 등의 매체를 통해 제공한 정보를 취득하는 시대였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는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카메라와 인터넷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누구라도 정보의 제공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 디지털 성폭력이다.

디지털 성폭력은 온라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등 다양한 용어로 혼재되어 사용되기도 하나 각각의 개념은 모두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을 개인적으로 정의하자면, 성적 욕구 유발 또는 충족을 목적으로 카메라, 휴대폰 등 디지털 장치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성폭력 및 인터넷 공간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범해지는 성폭력이다. 그 유형으로는, 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카메라등이용촬영죄), ② 성적 촬영물을 동의없이 유포하는 행위(유포죄), ③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통신매체이용음란죄), ④ 성적 사이버불링: 단톡방 내 성희롱·온라인 커뮤니티 내 성폭력·게임 내 성폭력·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성 성폭력·사진 도용 성폭력 등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적인 괴롭힘, 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⑥ 지인능욕: 지인의 사진을 성적 합성을 하거나 합성된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 ⑦ 재유포: 원유포자가 재유포하는 행위, 다운로드받은 영상을 제3자 유포하는 행위, ⑧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그루밍을 통해 전송받은 가슴·성기사진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 행위 유형에 따른 사례 및 처벌

### 카메라등 이용 촬영, 유포

디지털 성폭력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으로써,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것에서부터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범해지고 있다. 촬영 대상이나 방법도 다양한데, 개인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했던 사례를 유형화해보면, 촬영 대상(피해자)은 특정인, 불특정인으로 구분되고, 특정인을 상대로 범해지는 장소는 집, 숙박업소 등 특정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해지는 장소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이동하는 장소, 즉,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계단, 노상, 화장실 등이 많았다. 촬영방법도 휴대폰 보급률이 높은 만큼 휴대폰을 이용한 촬영이 많았는데,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특정한 젊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하체 부위를 촬영하는 방법이 가장 많았다. 대개는 앞서가는 피해자가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해자의 뒤나 옆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여 알려주지 않는 한 발각되기 어려워서 나중에 가해자를 검거해서 압수된 휴대폰을 확인해보면 그런 방식으로 하체부위만 찍힌 피해자가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이외에도 초소형 카메라를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설치해놓고 촬영하는 방법, 화장실 옆 칸에 먼저 들어가 휴대폰 동영상을 켜놓고 있다가 옆 칸에 사람이 들어오면 손을 위나 아래로 뻗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피해자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유형은 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집, 숙박업소에서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찍는 방법인데, 이러한 유형은 대부분 유포행위까지 이어져서 피해자의 피해가 증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촬영죄 및 유포죄 모두에 해당하여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함) 제14조는 “①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동의 없이 촬영한 그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에 처벌된다는 것이고, 제14조 제2항은 위 미나씨의 사례처럼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14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성관계 동영상을 미나씨의 남자친구가 아닌, 미나씨가 스스로 촬영한 다음에 남자친구에게 그 동영상을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해 주었는데 남자친구가 미나씨로부터 받은 그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실제로 연인관계이거나 미성년자 그루밍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스

스로 찍은 나체사진이나 가슴, 성기 사진을 전송받은 후 유포한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는 촬영물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문언상으로 보면, 촬영자와 촬영대상자가 다른 사람일 것을 전제한 규정이지 촬영자와 촬영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상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sup>1)</sup>.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다른 사람을 촬영하는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하므로, 평상복을 입고 있는 전신을 촬영한 경우에는 민법상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규정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판결)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할 경우에는, 몸에 짝 달라붙는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는 여성의 전신을 정면에서 촬

영한 경우<sup>2)</sup>, 짧은 치마 교복을 입고 있는 여학생의 전신을 정면에서 촬영한 경우는 이 규정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어떤 사례에서는, 가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려다가 각도를 잘못 맞춰서 상반신과 하반신이 함께 찍혔던 사안이 있었는데, 고의의 입증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죄로 처벌되었다.

## 성적 사이버 불링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과거에는 우편을 통해 음란한 그림이나 물건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이나 음향을 전달하는 유형이 많았지만, 휴대폰, 스마트폰 보급이 대중화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점차 카카오톡 등 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기를 찍은 사진이나 음란한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게임 내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의 휴대폰 보급률은 45.9%(스마트폰 31.7%), 고학년(4~6학년)의 휴대폰 보급률은 77.0%(스마트폰 68.2%), 중학생의 경우 휴대폰 보급률은 95.3%(스마트폰 93%), 고등학생의 휴대폰 보급률은 94.7%(스마트폰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위 조항 소정의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도16953 판결). 이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음란물유포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2) 촬영자의 각도가 정면이 아닌 아래에서 위로 향하도록 촬영하거나, 엉덩이나 허벅지를 부각하여 촬영했을 경우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

89.5%)<sup>3)</sup>를 기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휴대폰을 이용한 이러한 범행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인데,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친구와 함께 음란물을 시청한 후, 단순한 호기심으로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사진으로 찍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전송했던 사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키스하고 싶다, 너랑 자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고백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었다.

이외에도 단독방,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여 성희롱하는 대화를 하거나,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 내지 같은 편인 여성 게이머에게 성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희롱하는 행위, 교복

을 입은 여학생 사진을 올려놓고 그 아래 성적인 댓글을 다는 행위, 지인의 사진을 나체사진 혹은 음란 동영상에 편집하는 행위 등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유형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성적 사이버 불링이라고 일컫는다. 이들 행위는 행위태양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 디지털 성폭력 발생 현황

아래 표를 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발생건수가 2012년부터 점차 증가

〈표 1〉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2007년~2016년)

(단위: 건(%))

연도	강간	강제추행	강간등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등 상해/치상	특수강도 강간 등	카메라등 이용촬영	성적 목적의 장소침입	통신매체 이용음란	공중밀집 장소추행	계
2007	2,659 (18.5)	5,348 (37.3)	2,600 (18.1)	12 (0.1)	1,625 (11.3)	357 (2.5)	564 (3.9)	-	240 (1.7)	939 (6.5)	14,344
2008	3,621 (22.5)	6,080 (37.7)	2,601 (16.1)	17 (0.1)	1,625 (10.1)	368 (2.3)	585 (3.6)	-	378 (2.3)	854 (5.3)	16,129
2009	3,923 (22.6)	6,178 (35.6)	2,706 (15.6)	18 (0.1)	1,544 (8.9)	479 (2.8)	834 (4.8)	-	761 (4.4)	934 (5.4)	17,377
2010	4,384 (21.3)	7,314 (35.5)	3,234 (15.7)	9 (0.0)	1,573 (7.6)	293 (1.4)	1,153 (5.6)	-	1,031 (5.0)	1,593 (7.7)	20,584
2011	4,425 (20.0)	8,535 (38.5)	3,206 (14.5)	8 (0.0)	1,483 (6.7)	285 (1.3)	1,565 (7.1)	-	911 (4.1)	1,750 (7.9)	22,168
2012	4,349 (18.6)	10,949 (46.9)	1,937 (8.2)	13 (0.1)	1,208 (5.2)	209 (0.9)	2,462 (10.5)	-	917 (4.0)	1,332 (5.7)	23,365
2013	5,359 (18.4)	13,236 (45.5)	1,186 (4.0)	22 (0.1)	1,094 (3.8)	150 (0.5)	4,903 (16.9)	214 (0.7)	1,416 (4.9)	1,517 (5.2)	29,090
2014	5,092 (16.7)	12,849 (42.2)	624 (2.0)	8 (0.0)	872 (2.9)	123 (0.4)	6,735 (24.1)	470 (1.5)	1,254 (4.1)	1,838 (6.1)	29,863
2015	5,274 (17.0)	13,266 (42.7)	283 (0.9)	6 (0.0)	849 (2.7)	72 (0.2)	7,730 (24.9)	543 (1.7)	1,139 (3.7)	1,901 (6.1)	31,063
2016	5,412 (18.4)	14,339 (48.8)	192 (0.7)	8 (0.0)	736 (2.5)	56 (0.2)	5,249 (17.9)	477 (1.6)	1,115 (3.8)	1,773 (6.0)	29,357

자료: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 15면

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11. 15, KISDI STAT Report Vol. 16-21 “2016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 주요 내용”

〈표 2〉 연도별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발생 추이

(단위: 건)

성폭력 범죄 죄종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성폭속 범죄	음화등반포(판매, 임대, 전시, 제조)	166	60	7	7	22
	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법')	5,708	6,525	3,717	3,419	2,412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2,412	4,841	6,635	7,615	5,170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914	1,411	1,250	1,130	1,109
	음란물제작배포등 ('청소년보호법')	1,446	2,508	634	644	831
불법컨텐츠 범죄	음란사이트	1,613	1,452			
	성폭력	602	482			
	사이버음란물			3,633	3,523	2,515
				721	721	1,262
	사이버명예훼손·모욕	5,684	6,320	8,880	15,043	14,908
	사이버스토킹	976	847	363	134	56

자료: 경찰청, 각 연도별 『경찰통계연보』 중 죄종별 발생 및 검거상황, 사이버범죄 발생 검거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휴대폰, 특히 스마트폰 보급률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

디지털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대인 기피증, 우울증 등의 다양한 피해를 호소한다. 신체적 성폭력인 강간, 강제추행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다를 바가 없다. 필자도 약 6년 정도 피해자들을 조력하면서 간접 피해를 경험하였는데, 지하철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에 오를 때는 뒤를 돌아보며 휴대폰을 들이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되고, 집이 아닌 외부 어느 곳이든 화장실에서는 변기 칸 곳곳을 둘러보면서 못이 박힌 곳, 작은 구멍이 뚫린 곳 등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혹시나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화장실 옆 칸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위아래 빈 공간으로 휴대폰이나 사람이 쳐다보고 있지 않나하여 수시로 위아래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간접경험자인 필자조차도 이러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인데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고통은 오죽할까.

앞서 언급한 미나씨의 경우, 친구의 전화를 받고 성관계 동영상의 유포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전의 미나씨가 아니었다. 모든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바뀌었다. 미나씨는 친구의 전화를 받고 친구가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알려 준 웹하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미나씨의 피해영상물을 찾았다. 그리고 혹시나 하고 다른 유사한 웹하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같은 제목을 입력하여 동영상을 찾아보았고, 그렇게 방문한 국내 웹하드 사이트가 약 20곳 정도 되었다. 모든 웹하드 사이트에서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아이디로 업로드 된 - 같은 제목, 어떤 곳은 제목을 살짝 변경한 - 미나씨의 피해영상물이



검색되었다. 미나씨는 잠을 자는 것이 두려웠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어느샌가 웹하드 사이트에 다른 아이디로 미나씨의 피해영상물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미나씨의 하루일과는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매일 웹하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피해 영상물을 찾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그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일이 전부였다. 대부분의 사이트 운영자는 미나씨의 이메일을 읽고 피해영상물을 삭제해주었으나, 다른 사람에 의해 다른 아이디로 피해영상물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를 해주지는 않았다. 피해영상물은 대부분 같은 제목, 같은 영상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웹하드 운영자 스스로 저작물이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사후조치인 필터링, 키워드 차단 등과 같은 조치를 해주면 미나씨의 고통과 수고로움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임에도 웹하드 운영자들에게 그러한 기대를 할 수는 없었다. 사실 웹하드 운영자에게 불법 피해영상물은 그들 수익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저작물 외에는 그들에게 피해영상물이 유통되는 것을 찾아내고 방지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나씨는 처음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피해영상물을 찾는 일을 병행하였으나, 직장 동료 중에 누군가도 미나씨의 피해영상물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과 하루 이틀이면 피해영상물이 없어질 거라 생각했던 일이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업로드 된 파일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회사를 다니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회사를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 길거리에서 미나씨의 얼굴을 알아보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나씨는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일부러 살을 찌웠으며, 이름까지 바꿨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했던 휴대폰 번호를 바꿔 그동안 인연을 맺었던

모든 이들의 연락을 차단하였고, 미나씨는 그렇게 순식간에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었다.

## 결어

미나씨는 이처럼 매일 피해영상물을 찾아 삭제를 요청하는 일을 하였지만, 그 일이 너무 많고 벅차서 한동안은 삭제해주는 업체(소위 ‘디지털장의사’)에 비용을 지급하고 의뢰했던 적이 있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수입이 없었던 미나씨에게 그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었다.

다행히 2018년 2월부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센터원팀에서 피해영상물을 찾아 삭제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영상물의 삭제 및 차단조치를 요청하는 일을 대신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것은 다행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피해영상물은 어디선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는 행위, 그리고 그렇게 찍은 영상을 유포하려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러한 행동은 스스로의 인생은 물론 피해자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 피해영상물 유포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러한 피해영상물로 돈을 버는 웹하드 운영자가 없도록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길 간절히 바란다.